

이미 20년 전에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우리나라에서 단체들의 의사표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교에서 나온 삭발과 몇 걸음 걸으면서 절하기이다. 삭발은 어리석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마음 뒤는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하는 몸 가다듬기이다. 사명 대사는 “머리를 깎는 것은 어지러운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요, 수업을 기르는 것은 스스로 대장 부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설명했다. 사명 대사의 이야기를 설명으로 이해할 것인가, 변명으로 오해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글을 읽는 이의 마음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삭발과 몇 걸음 걸으면서 절하기에 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이다.

‘몇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기(○步一拜)’는 절의 원칙이라기보다는 먼 길을 가면서 절을 하다가 보니 한 걸음 보다는 세 걸음, 세 걸음 보다는 열 걸음에 목표지점에 이르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정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

우리나라 시위현장에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막 힘을 모으고 있을 때 수경 스님이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하고, 그 절에 문규현 신부 등 이웃종교의 성직자들이 함께하면서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때 스님과 신부님, 목사님과 교무님들의 목직인 움직임이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되는 새만금에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게 했다.

그들의 삼보일배는 새만금 간척공사를 막아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중요한 방법으로 뜻때김해 추미애씨는 민주당을 살리는데



불자 세상보기

법현 스님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절(拜) 제대로 해야 한다

쓰기도 하는 등 삼보일배는 저항운동의 트렌드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스님과 불자뿐 아니라 좋게 말할 때 이웃종교요, 싸우면서 말할 때는 우상의 종교요, 무너뜨릴 대상이라고도 험하게 말하는 기독교의 목사까지 삭발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열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기(十步一拜)’로 봉정암에 오른 보광 스님이 한 말이 불교계를 울리기 시작했다. 걸어서도 가기 힘든 설악산 봉정암을 열 걸음에 한 번 절하면서 오른 그 열정으로 순수한 신앙행위인 절하기를 정지 선 전용이나 데모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그 의미를 곱씹을 필요가 생긴 것이다.

무릇 절하는 것이야 전 세계인이 나름의 예절 차리는 방법일 따름이다. 그런데 절하는 방법 가

운데 하나인 ‘몸의 다섯 부분 땅에 대기(五體投地)’는 가장 공손한 절하기이다. 본디 절은 해질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는 원시적 인사법이다. 이마와 양 팔꿈치 그리고 두 무릎을 땅에 댄으로써 도저히 다른 존재를 해칠 수 없는 동물이 되어버린 오체투지는 종교적 신성성이 가미되면서 아름다운 뜻과 상징성을 가지게 됐다.

천태종의 수행법 중 하나인 상행삼매(常行三昧)는 마음집중의 상태인 삼매를 걸어 다니면서 도 이뤄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면서 걷는 수행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교리적 배경은 모든 부처님이 보살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랜 생을 거지면서 존재의 여러 형태를 띠게 되었고, 윤회의 현상으로 살펴 보면 삼라만상이, 풀과 나무에 이르기까지 불보

살이 아닌 존재가 없다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이른 바 초목성불론(草木成佛論)이다. 그래서 부처인 삼라만상에 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기독교(가톨릭)의 천지가 하나님의 몸 아닌 곳이 없다는 것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교황이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첫 방문지에 입을 맞추는 의식인 친구(親口)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절이라는 동작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는 본디 불교의 예절인 절이며, 저렇게 할 때는 동작만 절이지 내용은 다른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불자는 바람직한 절하기를 가려내고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하기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절을 하는 장소가 법당이든 아니든 대상은 법당 안의 불보살님과 같이 때문에 부처님을 대하듯이 공손하게 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얼굴은 평화롭게 그리고 마음은 공손하게 존경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절을 해야 한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절을 하거나, 숫자에 매달려 대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수효인 건강을 강조하면서 절하는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것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물며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공손한 마음과 몸으로 하는 성스러운 공양법인 절을 온통 저항의 마음과 몸짓을 표현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절하기를 방법으로 써야 한다면 그 뜻을 헤아려서 평화롭고 공손한 몸과 마음가짐을 미리 가져야 할 것이다.

社說

MB 정부의 ‘狂信病’ 공포

촛불 정국이 나라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는 가운데 불교계는 ‘공우병’보다 무서운 ‘광신병(狂信病)’의 공포에 놓여 있다. 불교계가 장로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종교편향을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종교편향 사례들은 현 정부의 종교코드가 개신교로 집중되어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 ‘고소영 정권’이란 말은 소망교회 출신을 고위직에 발탁한데 대한 편협성을 꼬집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상반신 사진이 담긴 ‘경찰복음화’ 포스터가 경찰청에 게시된 것이나 지도에서 사찰을 빼고, 개신교 신자인 학교장이 교내의 문화재를 땅에 묻었다가 창고에 방치하는 사례들은 현 정부의 종교적 우월주의 내지는 극에 달한 오만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종교편향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뿐일 것이다. 다종교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게 마련이다. 그 단점이 충돌 양상으로 확대되면 국민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망국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개신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편향적 사례들은 충돌의 직전으로까지 몰려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기관이나 교육현장 행정일선 등 공직에 있는 사람들만 정신 차려도 편향 사례의 9할은 줄어들 것이다. 자신의 종교와 직분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간이’ 같은 사람은 그 자리를 내놓는 게 옳다. 불교계도 이번 기회에 종교편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기구를 꾸려야 할 것이다.

산마다 케이블카 건설 열기?

명산(名山)이 명산인 이유는 빼어난 풍광이 있기 때문이다. 경치가 좋고 생태환경이 뛰어나지 않으면 명산이 될 수 없다. 사람과 조수가 깃들어 안온하지 않은 산이 어떻게 명산이 되겠는가? 산은 생명을 품어 기르는 공덕만으로도 존엄한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산을 그리워하는 것은 본능일 것이다. 명산에 명찰이 있는 것 또한 사찰의 존재 이유가 수행에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큰 산은 큰 사람을 낳는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산들은 이름이 있건 없건 다 명산이다. 인심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들의 터전을 제공하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담아 온 산들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산을 오르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한 걸음씩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를 설치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정상에 오르려는 욕심에 산마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황산 같은 고산도 아닌 데 굳이 케이블카를 설치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수행환경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개발이익을 노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기는 우리 민족이 유전자로 전해 받은 산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밀양 얼음골이나 팔공산의 케이블카 설립 추진은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저버리고 자연을 짓밟고 살아가는 탐욕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정복의 대상으로 삼을 때 자연으로부터 받을 역공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사숙고 할 일이다.

눈치만 보는 사람

“전 오직 부처님 눈치만 봅니다!” 신씨는 말하고 나서 자신도 놀라버렸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항상 뒷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

자라면서 신씨는 항상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다. 가게를 하던 아버지는 그 날의 매상에 따라 기분이 좌우됐다. 기분이 좋은 날은 어머니에게도 좋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쁜 날은 저녁 식사 반찬부터 무조건 트집을 잡고 불평하며 어머니와 다투기 일쑤였다. 그런 때는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 돈을 달라고 해도 화만 낼 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신씨와 다른 형제들은 자연히 저변이 되던 아버지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매일 밤 아버지 기분이 어떨지를 잘 봐서 그에 맞춰서 행동해야지 안 그러면 야단맞거나 심지어 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은 느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었다. 어린 신씨가 친구와 다투고 들어와 기분이 울적해도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날은 좋은 척 해야 했다. “건강지계 왜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 하고 야단을 맞게 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그날의 기분을 결정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그저 그에 따라야 했다. 자기의 감정이나 주장을 못하게 되자 학교에서도 그렇게 됐다. 항상 두려워서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 마음속엔 불안감이 따라다녔다. 공부 집중보다 선생님들의 기분을

“왜 그렇게 죽대가 없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70 부처님 눈치만 봅니다

살피고 신경쓰다보니 성적이 좋을 수가 없었다.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상사들은 항상 두려운 존재였다. 결재 받으려면 눈치를 보느라 찢찢매매가 됐다. ‘왜 그렇게 죽대가 없어요?’ 하고 동료나 후배들까지 뭐라고 했다. 알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뒷사람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연상되어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 억울하고 손해 보는 일도 많았다. 다른 동료들은 상사와 잘 지내면서 많은 정보도 얻고 추천도 받고 하는데 신씨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사실 중반이 넘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다. 아내를 따라 절에 나가기 시작했다. 신씨에게 충격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부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부처님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을 되돌리고 집중해야 한다. 모든 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서 지어 놓은 대로 나온다.는 점,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야 인연도 바뀌고 환경도 바뀐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다. ‘그런 아버지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입력된 대로 나온 결과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체면을 차릴 수도 없이 일 년이 넘도록 신씨는 절에만 가면 눈물이 나왔다.

이제 인생을 바꾸고 싶었다.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내 속의 부처님이 한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무척 어려웠다. 자신의 본래 마음을 찾았다고 하지만, 신씨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습관된 것을 내면으로 되돌리려고 하니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꾸준히

절에 다니지 칠년이 넘어갔다.

오늘은 중요한 일로 부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 상사가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했다. 여러 사람이 찬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신씨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상사가 “자기 의견을 말하세요! 당신은 항상 남 눈치를 봅니다!”하고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닌가.

중생이 바로 부처

가끔 듣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자기도 모르게 “전 이 세상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전 오직 부처님 눈치만 봅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라는 소리였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신씨 자신도 놀랐다. 얘기를 들은 스님은 “그게 바로 거사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성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하였다.

어떤 성격의 어려움도 결국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자기 내면에 있다. 중생으로서의 개인은 약하지만 근본 부처님 마음에는 누구나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중생심을 하나하나 조복받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수행이다. 신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힘이 생긴 것 같았다. “부처는 본래 자기 마음 속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 중생이다”라는 법어가 실감난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활동 지역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부산일원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대구일원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충북 / 충남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밀양 / 창령 / 의령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김해 / 마산 / 거제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광주 / 전남지역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전북지역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영주 / 문경 / 봉화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남해/고성/시천/함양/진주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명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족,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1 산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론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